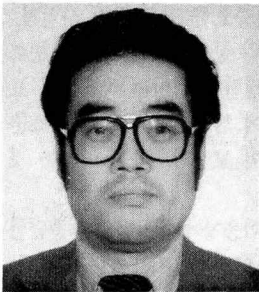


지역의 정보화



柳 京 熙

〈한국데이터통신연구위원〉

필 자

- ▲ 경북대 물리학과 졸업
- ▲ 성균관대 대학원 (전산) 석사
- ▲ 한국에너지연구소 연구관
- ▲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전산실장
- ▲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 ▲ 한국데이터통신 교육본부장
- ▲ 한국데이터통신 연구위원 (현)
- ▲ 동탑산업훈장 받음

영어사전에서「커뮤니티 (Community)」란 말을 찾아 보았다. 여기에는 「(이해따위를 함께하는) 단체」, 「공동사회 (국가, 도시, 읍, 면, 리, 학교, 동문, 동업, 공동체)」라고 풀이되어 있다. 이걸 단순히 지역공동사회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며, 우리말에도 정확한 어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커뮤니티라고 원어의 소리나는 그대로를 쓰기로 한다. 몇년 전 전기통신분야의 국제회의에 이름을 붙이기를 텔레커뮤니티 (Telecommunity) 라고 하였다. 원거리이긴 해도 이해를 같이하는 모임이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말을 잘 만 들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온라인을 이용하는 사람들끼리는 간단히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겠지만 여기에 지역적인 의미를 약간 더 강화해서 데이터 커뮤니티 (Data Community) 란 말이 만들어져서 쓰여지고 있다. 옛날의 커뮤니티는 우선 지역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래서 이른바 지연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졌다.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실현되고 있는 단계에서 지역감정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교통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른바 지연에 의한 커뮤니티만으로 충분치 않아서 학연이 생기게 되었으며, 나이가 차서 군복무를 하게 됨으로써 군대 동기간의 커뮤니티도 생기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성씨를 바탕으로 한 문벌의 커뮤니티도 무시할 수가 없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나이든 사람은 나이든 사람대로, 취미나 전공이나 업종별로 끼리끼리 새로운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있다.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민주화가 촉진되며, 지역의 발전도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일수록 많은 커뮤니티에 속해져 있으며, 한사람이 적어도 몇개의 커뮤니티에 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추석이나 구정에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직장인이 직장 커뮤니티로부터 시골 고향의 커뮤니티를 찾는 예에서 발견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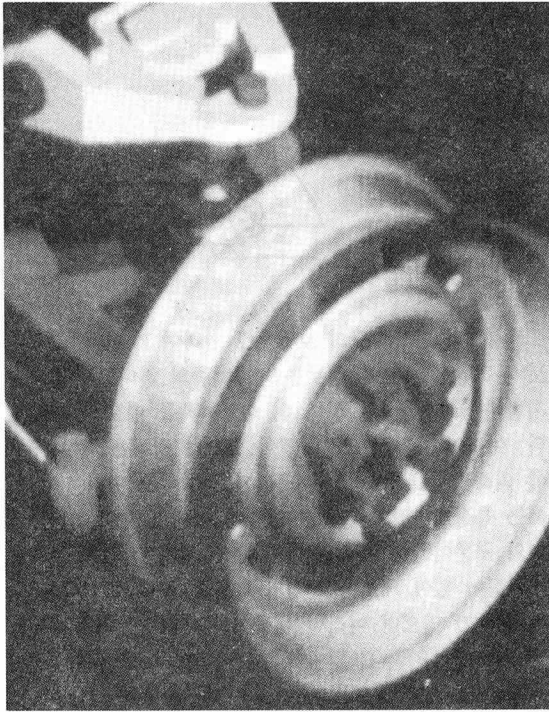


성모도 하고 친척끼리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고 모두가 성공적인 커뮤니티 생활을 이룩하고 돌아 오는 것 같지는 않다. 오늘날의 커뮤니티는 ①도시의 인구집중, ②농촌의 도시화, ③도시속의 마을사회(아파트 단지,반사회), ④도시사회의 성숙, ⑤타인 사회와 의사소통의 불균형 증대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농어민과 도시근로자와의 통신불통에서 오는 세대간의 격차확대 등이 이제는 사회적인 고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간 격차와 세대간 격차는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성과 의사소통의 증대만이 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농담이라도 계층간에 따라 그 감흥은 달라진다. 대학생에게 재미있는 농담이 4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우습지 않다가 재미가 없다든가 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동일한 연령층에서도 전공에 따라서 다른 계층이 자연적으로 구성되며, 또한 전공이 같으면서도 연령층이 구별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대체로 지역적으로 서클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연계되어 정보통신이 이루어지며, 연령층, 전문분야별로 새로운 서클 또는 대화의 광장이 만들어진다. 필자가 9개월여에 걸쳐서 매일 제작하여 발송하는 「온라인 하루 한마디 신문」의 130여명의 독자 중에는 대체로 20대가 30명, 30대가 50명, 40대가 30명, 50대 이상이 20명 정도이다. 이 신문이 가장 잘 읽혀지는 층이 그래도 20대와 30대이다. 그밖의 연령층의 반응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다 읽지 못한다.”거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심이 없다.” 등이다. 그러나 여성독자인 경우에는 거의 연령에 관계없이 긍정적 평가이다. 문제는 모든 지역, 모든 연령층, 모든 전문분야별 계층을 만족시키는 일관된 정보소스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 지역별로, 2차적으로는 연령대별로, 3차적으로는 전문계층별로 별개의 온라인 신문을 제작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느꼈다. 더우기 온라인 신문은 「매스 미디어」의 다음 세대인 「미니 미디어」에 이미 도달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컴퓨터와 통신수단의 보급으로 인하여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새로운 정보통신 매체중의 하나인 「전자사서함에 의한 온라인 신문」의 실험사례를 예로 들어 보았다. 이것이 호기심에도 원인이 있으나 정작은 정보수요에 의해서 날로 이러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매체는 특정계층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 연령, 지역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다. 정보통신이 거리나 계층에 구애됨이 없이 새로운 관심자 그룹의 공통 관심사를 묶어낼 수가 있으며 이러한 이들끼리 데이터 커뮤니티의 형성이 새로운 추세에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컴퓨서브(Compuserv), 소오스(Source), 다우존즈뉴스(Dow Jones News), 리트리벌(Retrieval), 델피(Delphi) 등이 구성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가입자수가 이미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가 스스로의 특별관심자 그룹에 몇개씩 가입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시스템을 발전시켜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자의 수는 해마다 격증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유럽, 일본 등지에서 늘어나고 있다.

데이터 커뮤니티 형성의 가능성으로 캐럿토키(Carrot Talking)과 펌프킨 히어링(Pumpkin Hearing)을 들 수가 있다. 캐럿토키이란 그 어원은 잘 몰라도 「말이 흥당무가 먹고 싶어서 앞에 드리워진 흥당무에게 무언가 말을 하는 듯한 몸짓」을 말한다. 그러니까 결코 아무에게나 아니라 자기만 아는 자기때래의 사람들에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어느 회사에서는 고교생만을 위한 자유로운 대화의 창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즉 어느 전화번호를 돌려서 2분동안 자기 또래에게 하는 식으로 아무 소리나 한다. 욕을 하거나 은어를 쓰거나 등, 이것을 캐럿토키이라고 한다. 다음 어느 고교생이 다른 어느 번호를 돌리면 이렇게 녹음된 소리를 6분간 들려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멍청한 기계에서 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걸 듣는다고 해서 펌프킨히어링이라고 한



다.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자기 또래의 말을 아주 즐긴다고 한다. 광고를 하지도 않고 스스로 알아서 신청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만이 아는 번호를 돌려서 아무 말이나 지껄여 넣고, 때로는 거기에 담겨진 다른 소리를 듣는다. 이것도 하나의 커뮤니티 형성의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이제는 '이들만의 정보통신 매체가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한다.

계층은 연령별로 구별함에 있어서 30대 이상과 같이 재래식 구분대로 하면 10대에서는 대단히 곤란한 일이 생긴다. 이러한 현상을 이제서야 느껴 세대차이니 세대격차니 해서 청소년문제를 생각하여야 하는 단계가 되고 있다. 이들에 의한 정보통신 수요는 엄청나게 달라서 기존의 틀에 끼워 넣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들은 컴퓨터로 치면 아주 천재적으로 잘 배우고 쓰며 음악, 스포츠, 오락부문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갈구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다스릴 수 없는 10대나 또는 20대 초반의 청소년을 「신인류」라고 부르고 있다. 가치관이 아예 기성세대와 다르다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이제는 분명히 세대격차를 줄인다는 정도의 소극적인 말로서는 맞지가 않다.

이러한 물질이 우리나라에 밀어 닥치고 있으며, 이러한 격변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염려되기도 한다. 이들의 신인류 세대는 컴퓨터에 의한 정보통신에 있어서도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회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들에게 그들만의 「데이터 커뮤니티」를 형성시켜 주는 것도 대단히 의의 있는 일이다.

지방대학의 교수들은 정보의 중앙집중 현상이 불공평한 일이라고 지적해 왔다. 민주화와 더불어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다.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보의 중앙집중 현상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은 지방별로 「데이터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이미 데이터 통신망의 전국적인 확산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되어 왔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이러한 정보통신망은 지방별로, 각 계층별로, 각 분야별로, 비교적 작은 그룹의 정보소스를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스템은 전국 어디에서든지 중앙뿐 아니라 전세계의 정보소스를 모두 접속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고, 효과적인 정보교환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뿐 아니라 재래식 정보이용 습관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필자가 하루는 光州지방의 한 전자사서함 가입자로부터 불의의 편지를 필자의 단말기에서 발견하였다. 하루에 한마디씩 써보내는 걸 자기에게도 보내달라는 내용이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배포자 목록에 그의 ID를 추가해 두었다. 그런데 하루는 그로부터 「정보사회를 생각하는 사랑방」에 가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다.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만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그 지역에 별도의 사랑방을 만드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타진하기 위하여 광주에 내려갔다. 관심있는 사람만 좀 모아달라는 요청을 하고... 대학교수, 전산실장, 기업체 임원 등 무려 38명이 모였다.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무등 사랑방」을 그 자리에서 결성했다. 당분간은 한마디 신문을 오프라인으로 각자에게 뿌리돼, 단말기가 마련되는대로 온라인으로 서로 교신하기로 하고...

하나의 조그마한 예이기는 해도 이것이 「데이터 커뮤니티」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이러한 대화의 광장을 넓힘으로써 기술수준도, 정보이용 경험의 수준도 고루고루 향상됨을 알았다. 이러한 새로운 네트워크의 구성은 정보문화 사회를 맞이하는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